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p>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p> <hr/> <p>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h1 style="font-size: 4em; margin: 0;">새고려신문</h1> <p style="font-size: 1.2em; margin: 0;">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2020년 6월 12일(금) (음력 윤 4월 21일) Пятница 12 июня 2020г. № 23(116890)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p>
--	---	--



### 사할린주, 러시아의 날 기념

러시아의 날을 맞아 사할린주에서 100개 이상의 행사가 열린다. 사할린 지역 주민들은 <러시아의 깃발. 6월12일>, <러시아의 창>, <전 러시아 헌혈 주간>, 및 미니 콘서트 등 대규모 전국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러시아의 깃발. 6월12일>행사가 10시에 시작되고 몇몇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등산에 참가한다.

11시에는 주내 모든 지방에서 미니 콘서트가 진행되고, 주 중심도시에 가까운 공원에서 주요 기념식을 진행한다.

12시에는 학업, 스포츠, 예술, 사회적 활동에서 가장 우수한 14세 이상의 학생들에게 러시아 시민 여권을 수여한다.

16시에는 미니 콘서트를 개최하여 젊은 음악가, 악단 및 무용단이 집의 발코니와 창문으로 볼 수 있는 명절 프로그램을 조성한다.

<러시아의 깃발>, <러시아의 창> 플래시몹의 일환으로 모든 희망자는 집의 창문과 발코니에 러시아 국기를 준비해 게시하는데 참가할 수 있으며 이날을 기념하여 그림으로 장식하고 소셜 네트워크에 기획 참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다.

(이예식 기자 사진첩에서)

### 친애하는 사할린과 쿠릴 주민 여러분!

러시아의 날을 맞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날은 러시아의 주요 기념일이자 새롭고, 강하고, 자유로운 러시아의 탄생일입니다. 정확히 30년 전에 채택된 국가 주권에 대한 선언은 이날을 위한 시발점(始發點)이 되었습니다. 이때 러시아 연방의 성공적 발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것을 성취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여 그 도전에 준비돼 있어야 합니다.

헌법 개정안은 러시아의 이해관계를 보호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투표가 7월 1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헌법 개정안은 사회적 복지를 강화하고, 아동과 모성의 역할 및 가정에 대한 지원, 의료계의 품질 향상 및 접근성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할린주로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국경의 불가침을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공고히 하는 것이 쿠릴 열도의 영유권에 대한 문제에 마침표를 찍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할린 지역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새로운 기획들을 실현시키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들입니다.

우리의 내일이 어떠할지는 여러분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 행동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사할린주 주민 모두의 강건함과 가정의 행복과 만사의 형통을 기원하며 기념일을 축하드립니다.

사할린 주지사 알레리 리마렌코

### 사할린주, 극동 지역에서 예산 자료 공개에 선두 차지

6월 5일(금) 사할린주 2019년 결산 예산 사용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팬데믹과 관련한 통제로 회의는 원격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5월 29일부터 6월2일까지 공청회 참여 희망자들은 주 재정부 주소로 의견을 보낼 수 있었다. 결산 논의에 주두마 의원들과 주 정부 집행기관 대표자들이 참여했다.

2019년 주 총수익은 1833억에 달해 사할린주는 2018년 석유 생산량과 소득세의 증가로 자체 수익에 따른 계획을 20%로 늘린 가운데 지출액은 1,828억 루블리에 달했다. 예산은 유난히 사회적 목적을 유지하고 있다고 공청회를 진행한 알렉세이 벨리크 사할린주 정부 수상이 강조하고 주민들의 질문을 읽기에 앞서

"우리는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 모두에게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2020년도에도 추가 지원 조치와 주두마와 공동으로 지원 조치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주민들로부터 반응을 듣고 있다. 사할린주는 예산 자료 공개에 따라 극동지역에서 1위를, 전국에서 4위의 선두 자리를 차지했다."고 알렉세이 총재가 강조했다.

사할린의 주민들은 예산 집행에 있어 기획 실행과 혜택 제공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졌다.

주내에서 청년 예산과 지역 시책 지원의 범주에서 170개의 기획 사업에 총 5억 루블리 이상이 책정되었다. 이는 스포츠 시설, 어린이 놀이터, 휴식공간 정비와 일련의 기획 등이다.

2019년 사회적 분야의 예산액은 지역 예산의 절반 가량인 910억 루블리가 책정되었다. 이에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의 지시로 러시아 타 지역보다 조속히 공공 부문

의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인상한 가운데 이 방면에 84억 루블리가 배당되었다. 보건 부문에는 237억 루블리가 배당되었고 지역에서는 이동 진료소와 외래 진료소 건설을 지속하고 의료기관의 기술적 자재 설치를 개선했다. 교육 분야에는 284억 루블리가 배당되어 주 예산으로 코르사코프, 돌린스크, 오하 구역의 톨고르 마을의 학교를 건립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학교들에 3개의 현대적 건축물이 생겼다.

"지난해에는 기반시설 개발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 주지사의 주도로 요긴하게도 지역 도로 기금액이 증가해 185억 루블리에 달했다. 이 기금은 사할린 지역 및 지방 주요 도로 건설 및 재정부에 사용되었고 사할린 주민들이 모든 교통수단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향상시키는 데 26억 루블리가 사용되었다."고 주 재정부 울가 로파티나가 보고했다.

건축에 예산 투자를 포함한 공공주택 사업의 지출액은 43억 루블리가 증가한 총 317억 루블리에 달했다. 전기, 상하수도, 난방, 고체 폐기물 처리에 있어 사할린 주민들을 위한 세금 인하를 위해 공공기업들에게 제공된 보조금은 66억 루블리였다.

주두마 의원들은 국민 사회적 지원과 도로 정비와 건설, 문화 및 교육, 보건 분야 개발과 관련한 질문을 던져 각 분야의 전문 최고 책임자들이 답변했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사할린 주두마 의원들에게 2019년 주 예산 집행에 관한 법안을 채택할 것을 권고하고 주 정부에게는 사회적 의무 이행에 우선적 주의를 기울여가길 요청했다.

(주정부 홍보실 자료에서)

<p><b>새고려신문</b></p>	<h2 style="margin: 0;">2020년 하반기 신문주문 계속</h2> <p style="font-size: 0.8em;">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0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할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p> <p style="font-size: 0.8em;">6개월 구독료는 522루블리 90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font-size: 0.8em;">(본사 편집부)</p>
---------------------	--

6월 12일 러시아 날을 맞아

# 전문가로서 늘 성장을 갈구하는 자세로 오늘을 산다

## '좋은 일하거나 나쁜 일하거나 그것은 항상 제자리로 되돌아온다는 신념으로'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말리놉카>는 건설된 지 얼마 안 되는 주택단지다. 이 단지가 잘 관리되도록 단지 관리회사 사장직으로 실라초와 알료나 춘스코브나(결혼전 성은 박)가 영입되었다. 바로 4년 전 일이다. 그때 주택단지 공사권을 가진 <리고디자인>회사에서 주택 세대 판매를 시작하면서 앞으로 단지 관리가 중요해져 이 분야의 우수 전문가를 찾고 있었다.

사할린 주택 공공사업 분야에서 2015년 사업 성과를 살핀 가운데 2016년에 사할린주의 주택 관리회사 중 코르사코브의 <사쿠라 플러스>회사를 최우수 회사로 선정했다. 당시 회사 사장은 알료나 실라초와였다.

1983년에 사할린주 네벨스크시에서 태어난 알료나는 어릴 적부터 코르사코브에서 살아왔다. 거기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후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있는 사할린 국립 비즈니스 및 정보학 전문학교에 입학했다. 전공은 법률학이었다. 최우등으로 전문학교를 졸업한 알료나는 코르사코브로 되돌아가 주택 공공사업 분야에서 일을 시작했다.

이 분야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전기 전문가인 아버지가 난방시설 관리회사에서 근무했었는데 그 당시 공공사업 시스템에서 법률 전문가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꼭 필요한 직무를 인지한 데 있다. 주택 공공사업은- 난방, 수리, 건설, 상하수도 등-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분야다. 법학 전문가로서는 그저 법만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 관리에다, 민법에, 시설의 기술적인 면, 건설 기준, 위생 기준 등을 고려해야 하니 법학 전문가로서는 훨씬 많은 지식과 정보를 알아야 했다.

젊은 전문가인 알료나에게는 바로 이것이 적성에 맞았다. 전문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잘 이용하며 새로운 것을 연구하고 도전하는 것이 재미있었다고 말한다. 어릴 적부터 높은 책임감으로 알료나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잘 해내는 성격이었다. 어머니를 일찍(13살) 여윈 그녀는 아주 빨리 어른이 되었다. 딸로서 두 오빠와 아버지를 챙기는 것이 그녀의 몫이었다. 사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마음대로 대학 진학도 선택하지 못했다. 그저 열심히 해야만 했다. 전문학교에서 공부할 때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장학금을 받았고, 일을 시작하면서 전공을 전문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돈을 아껴 쓰면서 대학 학비를 벌었다.

"코르사코브에 유일하게 분교인 현대 인문아카데미란 사립대에 입학하고 일하면서 공부하게 되었죠. 분교가 같은 도시에 있어서 편리하고 큰 도움이 되었어요. 작년에는 극동철도국립대학 대학원에 입학했구요. 조건으로 연구 발표문은 매체 또는 인터넷 신문에 게재하는 것입니다. 이미 두 연구보고서를 준비했고, 하나는 이미 잡지에 실었고 또 하나는 곧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주제는 물론 주택관리시설 관련한 법률 연구입니다. 제가 계속 법률학을 연구했거든요."라고 알료나 춘스코브나가 설명했다.

사실 코르사코브 주택 공공시설 관리 분야에서 법률 전문가로 계속 일하고, 이 분야에서 러시아가 전체적으로 개혁을 시작하면서 2008년에 <사쿠라 플러스>주택 관리회사를 새로 설립할 때 설립 서류작성을 그녀가 도맡았다. 2012년에는 이 회사 설립자들의 결정으로 그녀는 <사쿠라 플러스>회사 대표 이사로 선정되었고 이 회사를 우수 회사로 만들었다. 알료나는 일하는 동안 많이 친해진 동료, 회사 분위기 등이 지금도 그립다고 한다.

<말리놉카>주택단지 관리회사 대표 이사직에 대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을 때 알료나는 두 가지 고민이 있었다고 한다. 하나는, 주민들을 위해 시의원으로 잘 활동할수 있다는 생각에 의원 출마를 꿈꾸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딸 문제였다. 스카우트하는 입장에서는 시의원에 대한 꿈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도 후에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냐는 말을 했고 또한 딸도 "유즈노사할린스크로 이사가고 싶다."고 했다.

<사쿠라 플러스> 회사에 대해서는 알료나는 별 걱정은 없었다. 사할린 국립비즈니스 및 정보학전문학교에서 공부할 때 예비선량과 알게 되었고 나중에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민인 러시아

총각은 그녀를 코르사코브까지 따라왔다. 건설 분야 전문가인 그는 같은 공공시설 관리 분야에서 근무했고 나중에 같은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다. 한 부서의 부장이었고 설립자들의 결정으로 바로 남편이 사장직을 맡았다.

<말리놉카>관리회사에서 일을 시작할 때 알료나는 매일 코르사코브에서 출근했다. 나중에는 대출을 받고 이 주택단지에서 집 한 채를 샀다. 지금은 남편이 매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코르사코브로 출근하고 있다.

<말리놉카>주택 단지 시민들은 문제가 생기면 관리회사가 빨리 대응한다고들 하며 관리사업에 만족해 한다. 각 주택의 주민들은 왓츠앱 채팅방이 있어 문제가 생기면 바로 이곳으로 들어가 문제를 제기한다. 회사 사장으로서 알료나도 이 채팅방 회원이다. 그래서 공식적인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도 바로 문제를 처리한다. 이것이 아주 큰 장점이다. 그가 크게 걱정하는 것은 주택 공공시설 관리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는 문제다. 이 분야에서 좋은 전문가가 일해야 발전할 수 있다고 그녀는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회의장에서 제안을 하고 있다.

2019년에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두마의 추천으로 알료나 실라초와는 시 사회협의회 위원 15명 중 한 명으로 선출되었고 작년 12월에 새로 선출된 협의회의 첫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사회협의회 회장으로 선정되었

다. 협의회는 앞으로 도시 면모 갱신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와 관련 사업은 이미 시작됐다. 업무 능력이 뛰어난 그녀는 사할린민족연합회 청년회 회장이고 사할린주 한인협회 청년회 고문이기도 하다. 법률전문가로서 자주 서류작성 등을 돕고 있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있다. 코르사코브에서도 자선활동도 하고 봉사도 했다.

15살의 딸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한다. 알료나가 좋아하는 말은 '부메랑은 언제나 되돌아온다'는 표현이다. 좋은 일하거나 나쁜 일하거나 그것은 항상 제자리로 되돌아온다는 믿고 있다. 올바르게 대해야 본인에게도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녀는 "화가 난 사람이 소리를 질러 크게 얘기할수록 상대방은 소리를 낮추어 조용히 말해야 한다. 사람을 진정시켜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리더십이 강하고 판단력이 빠르며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법을 알고, 전문가로서 항상 성장에 목마른 이 젊은 여성을 늘 응원한다.

(배순신기자)

# 이 모 저 모

## 네벨스크시, '강치 서식지 방문' 행사 진행

<부메랑>클럽은 네벨스크에서 사할린주 관광청의 지원 아래 <해양의 친구> 해양 동물구조팀과 공동으로 '강치(바다사자) 서식지 방문' 행사를 개최했다.

방문자들은 바다표범에 대해 더 많이 알고, 보드 게임을 즐기며, 유쾌한 강치와 사진을 찍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사전에 신청한 200여 명의 사람들은 보트를 타고 방파제 쪽으로 다가가 강치들의 자연 서식지에서 동물들을 볼 수 있었다.

행사의 많은 방문객들이 '해안가를 더 깨끗이'라는 환경운동에도 동참한 가운데 해안가에서 쓰레기를 수거한 봉지를 든 참가자 모두가 예코가방을 기념상품으로 받았다.

유익한 즐거움 외에도 행사를 맞아 모두 차와 도너츠도 함께 나누었다.

주최 측은 쓰레기 하나 남기지 않고 행사를 진행했고, 일회용 도구들을 사용하지 않아서 참가자들은 각자 컵을 준비해 왔다고 <부메랑>측이 전했다.

## В Невельске прошел праздник "В гости к сивучам"

Клуб "Бумеранг" совместно с группой помощи морским животным "Друзья океана" при поддержке агентства по туризму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вел в Невельске праздник "В гости к сивучам".

Все желающие смогли больше узнать о тюленях, поиграть в настольные игры, сфотографироваться с забавным сивучем и получить отличное настроение. Те, кто заранее записался, а их оказалось более 200 человек, прокатились на лодках к брекветеру и смогли понаблюдать за животными в их естественной среде обитания.

Многие гости праздника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экологической акции "Сделай берег чище". За каждый ме-

шок собранного на берегу мусора участники получили памятный подарок — экосумку.

Кроме познавательных развлечений, на празднике всех ожидал чай с пирожками. Организаторы проводят свои мероприятия без лишнего мусора и не используют одноразовую посуду, поэтому участники приносили свои кружки с собой, сообщили в "Бумеранг".

## 사할린 주민들에게 이탈리아 영화 상영

영원한 로마, 아름다운 나폴리,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한 영화들을 이달 <영화오락연합회>에서 소개할 예정이다. 이탈리아에 대해, 이탈리아에서 제작된 현대적 우수 영화들을 사할린 주민들이 볼 수 있게 된다.

장르상 단편물들로 코메디, 드라마, 탐정, 다큐멘터리 영화와 특별 기획 제작물들을 6월 11부터 21일까지 <옥차브리>영화관에서 상영한다. 사할린에서 이탈리아 영화 11개 작품 상영으로 11일간 이탈리아의 날들이 이어진다고 <영화오락연합회>에서 전했다.

## Итальянское кино покажут сахалинцам

Вечный Рим, прекрасный Неаполь и неизведанный Леонардо да Винчи представит в этом месяце "Кинодосуговое объединение". Лучшее современное кино из Италии и про Италию смогут увидеть сахалинцы.

Комедия, драма, детектив, документальная работа и необычные проекты — альманахи короткометражных фильмов на грани жанров покажут в киноконцертном зале "Октябрь" с 11 по 21 июня. Одиннадцать фильмов и одиннадцать дней Италии на Сахалине, сообщает "Кинодосуговое объединение".

## 홈스크, 러시아의 날 맞아 <맛있는>행사 개최

러시아의 날 기념의 일환으로 홈스크에서 처음으로 <파이를 굽고 고맙다고 말해>라는 행사가 열린다. 행사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행사의 핵심은 참가자들이 무언가에 도움을 주거나, 착한 일에 대한 감사의 표로 친지와 낯선 사람들에게 선물할 만한 파이를 참가자 스스로 구워야 하

는 것이다.

제과 만들기 행사의 조건에 따르면 작은 것발을 장식해야 하는데 이는 러시아의 삼색 미니 국기다. 특별 장식도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기념일의 주제와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장식된 파이 사진은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올려 누구에게 선물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

주최 측은 행사 참가자들에게 사진에 @nashkholmsk를 표기하거나 관심 있는 사람들 모두가 볼 수 있도록 #пекиХолмск를 삽입할 것을 요청했다. 인스타그램 계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왓츠앱으로 파이 사진을 보낼 것을 제안한다. 연락처는 8-902-57-33-855이다.

러시아의 날을 기념하는 <파이를 굽고 고맙다 말해>행사 참가자들의 사진은 소셜네트워크 '우리의 홈스크(Aur Kholmsk)' 페이지에 게시게 된다.

## В Холмске объявлена "вкусная" акция, приуроченная ко Дню России

В Холмске в рамках празднования Дня России впервые проводится акция под названием "Испеки пирог и скажи спасибо". Присоединиться к ней может любой желающий.

Суть мероприятия заключается в следующем: участнику нужно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испечь пирог, который он готов подарить людям (родным, знакомым и не очень) в знак благодарности за добрые дела, за помощь в чем-либо и т. д.

Согласно условиям акции кондитерское изделие должно быть украшено мини-флажком — уменьшенной копией российского триколора. Возможен иной декор. Главное, чтобы он соответствовал заявленной праздничной теме. Фото украшенного пирога необходимо разместить в профиле в Instagram с пояснением, кому адресован данный подарок.

Организаторы просят участников акции отметить на фото @nashkholmsk или поставить #пекиХолмск, чтобы снимок увидели все, кому это интересно.

(8면에 계속)

독자의 편지

금년 사할린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위험 때문에 노인과 어린 아이들은 집에만 있으라!

우리1세 노인들은 4월부터 노인정에도 못 가고 집안에만 있었습니다. 꼭 불 일이 있으면 마스크를 쓰고 식품을 사러 가고 관리비 등, 세금이 나오면 홀로 사는 우리들은 우체국이나 기관에 가서 차례를 서야 하는데 사람 간 1.5미터 간격을 유지해서 서야 했습니다.

혹 아파서 병원에 가면 코로나19 증상이 있는지 검사를 하고 있지요.

우리 1세 노인들이 집에만 있다고 해서 4월19일(일) 문화센터로부터 식품세트를 받았습니

다. 저는 전화로 '잘 받았습니. 감사히 먹겠습니다.'라는 인사를 드렸지요.

5월 6일(수)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노인정에서 림종환 회장님께서 노인정에 다니시는 1세 노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로 쌀 5킬로와 1000루블리가 든 급일봉투를 전달해 주셨으니 대단히 감사하여 노인정

에 전화를 드렸으나 통화도 못하고, 이 다음 회장님과 만나면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다고 마음 먹고 있지요.

6월6일(토) 사할주 한인협회 박순옥 회장님께서 식품세트를 가지고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까지 찾아 오셔서 들어와 "식품세트를 할머니께 드리니 잘 잡수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한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나는 두 손을 모아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렸지요.

이후 식품세트를 열어보니 물기름, 간장, 참쌀가루, 된장, 신라면 등 여러가지가 들어 있었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오래도록 잊지 못할겁니다.

한편으로는 토요일에 회장님께서 쉬시지도 않고 1세 노인들을 찾아 집집마다 다니시면 얼마나 피곤하시겠는지 걱정도 됩니다. 문화센터 안에서도 하시

는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아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새고려신문을 통해서 회장님께서 하시 사업들을 잘 보고 있습니다.

박 회장님, 앞으로 하시는 일이 다 성취하시고 큰 성과가 있기를 바라며 회장님의 가족들에게도 육체만강하시고 오래오래 행복하시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2020년6월8일 전채련 씀.

인사: 시 노인정 할머니들도 박순옥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림종환 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림종환 회장님의 가족들에게도 건강과 오래오래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노인정 할머니 일동.

전해철 의원, 사할린동포들 의견 수렴해 시행령 제정할 것

KBS 한민족방송 출연, 동포들과 함께 하는 노력 계속할 것 8년 동안의 노력으로 사할린동포 지원법 국회 통과시켜 영주귀국 사할린동포들, 2세와 함께 사는 간절한 희망 이뤄

"평균 연령이 70대 중후반인 영주 귀국 사할린동포들은 윤택한 생활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경제적, 물질적인 보다는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죽기 전에 2세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다.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들의 희망을 들어드리기 위한 것이 법안을 발의한 가장 큰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이 6일 방송된 한민족방송(AM 972 kHz)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에 출연해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고령자인 사할린동포들이 매년 한두 분씩 세상을 떠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전의원은 8년 동안 끈질기게 노력한 끝에 지난 4월 29일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사할린동포는 일제강점기에 러시아 사할린으로 강제동원 등으로 이주한 동포들이다. 이들은 사할린에서 오랫동안 어렵게 생활해 왔으며 국적문제에도 곤란을 겪어 왔다.

1992년 사할린동포 영주 귀국을 시작해, 2006년부터 영주귀국 확대사업으로 4천 3백여명의 사할린동포가 영주귀국 했다. 하지만 자녀들은 영주귀국 대상에서 제외가 됐다. 제2의 이산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은 사할린에 두고 온 가족들을 그리며 쓸쓸하게 여생을 보내고 있다.

전해철 의원이 사할린동포들에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민변에서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다. "과거사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던 중 안산 고향마을에서 사할린동포들을 만나면서 이들의 한과 아픔을 알게 됐다. 사할린동포들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으며 그 생각을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지난 2012년 사할린동포 지원 법안을 마련한 전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사할린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으나 외교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되고 말았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발의해 8년 동안 추진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전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영주귀국 대상자를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까지 확대하고, 항공·주거 등 정착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주귀국 사할린동포들의 평생 숙원을 해결해준 전해철 의원은 상임위 통과된 날 고향마을에 가서 법안을 설명하고 이 통과된 날 안산 고향마을을 찾았다.

"고향마을 행사가 있을 때나 어버이날이면 항상 고향마을을 찾아 가는데 지난 8년 동안 방문 중에서 법안 통과 소식을 전할 때 가장 기뻐했습니다. 20대 국회가 마무리하는 시점에 통과돼 보람을 느낍니다." 하지만 너무 늦게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동포들에게 죄송하다는 전의원은 "시행령을 제정할 때는 일방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사할린 현지와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오랜 숙원인 만큼 사할린동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그들에게 꼭 필요한 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어렵게 통과된 법안만큼 시행령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철저히 검토하고 실효성 있게 만들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 사할린 한인 1세대의 자녀와 배우자까지 영주귀국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동시에 사망자 기념사업과 유족지원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전의원은 "동포들이 어려운 시기에 끌려가서 대한민국을 한편으로 지키기도 하고, 성장하는 토양, 밑거름을 만들기도 했다. 그분들에게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분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주고, 동포들과 함께 하는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약속했다.

(KBS 한민족방송 제공)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약칭: 사할린동포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305호, 2020. 5. 26., 제정] 외교부(재외동포과) 02-2100-7575 외교부(아태1과) 02-2100-8015

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동포에 대하여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하여 그 피해를 구제하고,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사할린동포"란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韓人)을 말한다.
2. "동반가족"이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사할린동포에 대한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사할린동포에 대한 피해구제, 유해 발굴 및 봉환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할린동포의 명예 회복에 필요한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① 정부는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 및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귀국에 필요한 항공운임 및 초기정착비 지원
2.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3. 임대주택 등 주거 지원
4. 그 밖에 영주귀국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에 대하여도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 등) ①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으로서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제5조에 따른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외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여부의 결정기준과 심사 방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외교부 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17305호,2020. 5.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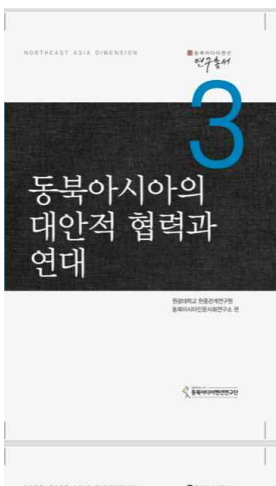
제2조(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정부로부터 영주귀국 및 정착을 위한 지원을 받은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은 제5조에 따라 영주귀국 및 정착을 위한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сообщает, что по просьбе 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ы в данный момент проводится мониторинг количественного состава желающих выехать к родителям на ПМЖ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В связи с этим просит не создавать ажиотажа, сейчас никакие документы никуда подавать не нужно, поименная запись не производится. Списки, которые сейчас составляются неизвестными лицами, учитываться не будут.

## Новая книга на двух языках

В самом конце весны в Южной Корее вышла в свет новая научная книга «Альтернатив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и солидарность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동북아시아의 대안적 협력과 연대). Издание осуществил Корей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Вон Гван (원광대학교).



Наряду с зарубежными учеными, авторы статей профессора СахГУ То Кен Сик, Ирина Балицкая, Виктор Корсунов, Елена Лисицына, а также молодой ученый Виктория Лубнина рассказывают об особенностях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в экономическом, историческом, педагогическом и филологическом векторах. Так, например, Елена Лисицына описывает в своем исследовании труд корейских рабочих на нефтяных предприятиях Северного Сахалина в период 1920-1930-х годов (사할린 북부 석유기업의 한인 노동자들의 노동 (1920-1930년대)), а Виктор Корсунов делится опытом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ого межвузов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как важного средства народной дипломатии (주요 공공외교 수단으로서 한러 양국 대학 간 협력).

Издание новой книги, адресованной специалистам по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му региону, стало результато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ахГУ и Университета Вон Гван.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этих двух высших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й началось осенью прошлого года.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новая книга появится в научной библиотеке СахГУ.

**Елена Иконникова, профессор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 Восемь новых секций ссирым открылись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осемь новых спортивных секций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й борьбы ссирым открылись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деления в Долинске, Корсакове, Аниве, Невельске, Холмске, а также сёлах Пионеры и Костромское Холмского района должны были приступить к работе ещё в начале апреля, но в связи с мерами по предотвращению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новой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открытие состоялось лишь в июне.



С выездной тренировкой секцию в Долинске посетил президент областной федерации ссирым Алексей Чун и спортсмены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корейской борьбы.

— Выездные тренировки нужны для того, чтобы более детально рассказать о технических моментах ссирым и показать их на практике. Для ребят этот вид единоборств в новинку и многие приёмы и правила они могут ещё знать недостаточно хорошо, — отметил Алексей Чун.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в долинской секции, открытой на базе мест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Физкультурно-спортивный клуб "Готов к труду и обороне", занимаются 24 спортсмена. Однако для профилактики не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одновременно тренировки посещают не более 8 ребят.

— До прихода в секцию ссирым наши ребята занимались кикбоксингом и самбо. Это универсальная борьба.

Она интересна своей историей, которая тянется с древности и техникой, которую можно перенести на другие виды борьбы, — рассказал мастер спорта России по самбо, тренер долинского клуба ГТО Александр Казак.

На тренировке президент федерации вручил долинским спортсменам пояса для борьбы, 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ие воспитанники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технику выполнения захватов и базовых упражнений.

— Я занимаюсь борьбой два с половиной года, но в ссирым пришёл совсем недавно. Насколько я уже понял, этот вид единоборств не такой и сложный, хоть и со своими тонкостями. Но он имеет много похожих элементов, которые мы используем в самбо и кикбоксинге, — рассказывает воспитанник долин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Стас Зарецкий. — Я считаю, что такие тренировки очень полезны. Так мы гораздо быстрее сможем освоить эту борьбу.

Выездная тренировка в Долинске не станет единичной — как только ребята освоятся, к ним вновь придет "делегация"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Ориентировочно такие выезды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два раза в месяц. Также в федерации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планируют посетить с выездными тренировками и остальные семь открывшихся отделений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й борьбы ссирым, сообщает областная минспорт.

## Почему Сеул не хочет следовать американской линии в отношении Пхеньяна

**Конфликт США и Китая по поводу коронавируса, торговли и технологий, волнения внутри Соединенных Штатов, возможность обострения японо-южно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 это сейчас наиболее обсуждаемые темы, которыми пестрят заголовки газет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РК). На этом фоне практически затерялся ещё один конфликт, который тлеет и которому пока не дают перейти в фазу открытых обвинений, но стороны при этом уже обозначили, что не собираются отступать и готовы идти на принцип. Речь идет о серьезных расхождениях между Сеулом и Вашингтоном по поводу КНДР, а также роли США в регионе.**

Хотя Южная Корея не собирается бросать полноценный вызов США, но, одержав убедительную победу на парламентских выборах, результаты которых были восприняты как вотум доверия народа президенту РК Мун Чжэ Ину, его правительству и правящему лагерю, Сеул дал понять, что намерен играть более самостоятельную роль в делах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даже если это не очень нравится Вашингтону и не особо укладывается в американское видение оптимальной стратегии в регионе. Вопрос в том, хватит ли у Сеула сил, чтобы дотянуть свою линию и сделать новый подход постоянным.

Обмен уколами между Сеулом и Вашингтоном происходил в последние недели уже неоднократно и касался самых разных вопросов, но обычно они так или иначе имели отношение к Северной Корее.

Различные официальны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ъедине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ключая министра Ким Ён Чхоля, несколько раз заявили, что южнокорейские односторонние санкции против КНДР, известные как "меры 24 мая", которые были приняты еще при консервативных предшественниках нынешнего руководства РК, уже изжили себя. Чиновники потом добавили, что это не означает отказ от соблюдения санкций ООН против КНДР, но далее последовали намеки, что, мол, Сеулу пора ослаблять собственные ограничения против Пхеньяна, которые куда суровее международных, в рамках ООН.

Затем южнокорейское ведомство проявило большую активность по части оказания гуманитарной помощи КНДР. Сеул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готов обсуждать поставки Пхеньяну 50 тысяч тонн риса, сотрудничать по части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я коронавирусу. Также РК заявила, что выделит структурам ООН 4,9 миллионов долларов на реализацию различных программ помощи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при каждом публичном выступлении не забывает напоминать про свою нацеленность на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КНДР, заявляя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поиска реалистич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межкорей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ун прямо сказал, что Югу "не стоит просто следовать

за динамикой развития американо-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диалога", а необходимо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выдвигать и реализовывать инициативы в отношении Севера. Мун добавил, что среди наиболее вероят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возобновлен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КНДР - продолжение работ по соединению железных дорог, организация поездок южнокорейских туристов в КНДР, создание парка мира в районе демилитаризованной зоны и ряд других.

22 мая влиятельный политик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Лим Чжон Сок, который в прошлом был глав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нынешнего президента, в интервью одному из местных журналов сказал следующее: "Если в этом году не произойдет прогресса в американо-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ях, то ... у президента Муна появится желание действовать и двигаться вперед, даже если это вызовет некоторую негативную реакцию у США". Лим, который в свое время был одним из главных фигур в окружении Мун Чжэ Ина и занимался подготовкой межкорейских саммитов, "прошелся" и по заместителю госсекретаря США Стивену Бигену, сказав, что тот требовал от Сеула прекратить всяче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Пхеньяном и безоглядно следовать курсу США в плане давления на КНДР.

На эти заявления Сеула очень быстро последовала ответная реакция со стороны США. Хотя тот же Лим Чжон Сок уже не является сотрудником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К, но о его тесных связях с лидером Юга хорошо известно Вашингтону. Потому в следующие два дня после публикации интервью Лима разны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госдепартамента обозначили свою позицию, заявив, что все послабления санкций возможны лишь в случае уступок КНДР по части отказа от ядерной программы, что США вообще не собираются ничего менять в своем подходе и продолжают "давить" Пхеньян.

Затем последовали и обвинения минюста США в адрес более 30 граждан КНДР и пяти китайцев, что они незаконно перевели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около 2,5 млрд долларов "для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ядерной программы". Хотя формально обвинения были сделаны еще в феврале, но сообщили о них только в конце мая.

Разного рода близкие к правительству США эксперты и официальные лица на условиях анонимности не уставали давать понять, что такая прыть Сеула по части развит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Пхеньяном им не очень нравится, а в худшем случае под санкции США могут попасть южнокорейские компании, если они начнут участвовать в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 КНДР пусть даже и по просьбе свое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кончание на 5-ой странице)*

##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 Более половины компаний РК сократят расходы на исследования

Более половины южнокорейских компаний планируют сократить во втором полугодии расходы на исследования и разработки, а также наем научного персонала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года. Как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результаты опроса, проведенного Корейской ассоциацией промышле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в период с 22 по 25 мая, расходы сократят 58% респондентов. В опрос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руководители 1.221 компании. В ходе опроса, проводившегося в марте, аналогичный ответ дали 37,7% респондентов. Наем научного персонала сократят 52% опрошенных, в то время как в марте подобный ответ дали 41,8% участников опроса. Пандемия COVID-19 привела к тому, что экономический рост страны стал отрицательным из-за сокращения экспорта и потребительских расходов.

## Российские авиакомпании могут возобновить зарубежные рейсы с 15 июля

Российские авиакомпании планируют возобновить международные рейсы с 15 июля при стабильном сокращении числа зараженных COVID-19 и при условии соблюдения строгих санитарных правил, сообщают в понедельник российские СМИ. При этом Федеральное агентство воздуш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России (Росавиация) предлагает возобновить авиасообщение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со странами Европы, включая Турцию, а также с Китаем и РК, в которых ситуация с COVID-19 стабилизировалась.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предложение Росавиация направит в Федеральную службу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защиты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Роспотребнадзор). Решение будет зависеть также от согласия государств на прием рейсов из России. Россия прекратила регулярное и чартерное авиасообщение с другими странами 27 марта. Исключения составляют рейсы для возвращения россиян из-за границы.

## Пак Нын Ху: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изывает население соблюдать режим повседневного карантин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настоятельно призывает население неукоснительно соблюдать режим повседневного карантина, поскольку в столичном районе периодически возникают новые очаги инфекции. Об этом заявил министр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РК Пак Нын Ху, выступая в понедельник на заседании Центрального штаба по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ю стихийным бедствиям и катастрофам. Он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поддержка населения важнее и эффективнее, чем проверки, которые проводят карантинные власти. С тех пор, как правительство усилило карантинные меры в Сеуле и столичном регионе, прошло две недели, но число вновь подтвержденных случаев COVID-19 сохраняется на одинаковом уровне – в пределах сорока в день. Пак Нын Ху распорядился провести проверку готовности к непредвиденным обстоятельствам и второй волне инфекции.

## Выплаты пособий по безработице повысили 1 трлн вон

В РК в условиях пандемии COVID-19 люди продолжают терять работу. В этой связи выплаты пособий по безработице достигли рекордной отметки.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май они составили 1 трлн 16 млрд 200 млн вон или примерно 843,5 млн долларов. Это на 213 млн долларов больше, чем за тот же период прошлого года. В мае заявки на получение пособия подали 110 тыс. человек. Это на четверть больше в годовом исчислении. Наибольшая доля пришлась на людей, работавших в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торговле, строительстве и туризме, а также в частных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ях. Ожидается, что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ая отрасль испытает наибольшее сокращение количества рабочих мест.

## Беспорядки в США наносят ущерб корейским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м

В США продолжаются беспорядки, вызванные трагической гибелью темнокожего американца Джорджа Флойда от рук полицейского. Одновременно растёт число случаев ущерба имуществу проживающих в США корейцев. По данным МИД РК,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9 часов утра 8 июня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ы 158 случаев нанесения ущерба магазинам и кафе, владельцами которых являются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естной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Наибольшее количество таких случаев приходится на Филадельфию – 56, Чикаго – 15, Вашингтон – 14, Сент-Луис – 11 и другие. Сообщений о человеческих жертвах среди корейцев пока не поступало.

(RKI)

## Почему Сеул не хочет следовать американской линии в отношении Пхеньяна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на 4-ой странице)

Параллельно обозначились сильные расхождения между Сеулом и Вашингтоном и по вопросам, имеющим отношение к военной сфере. В частности,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ы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ъединения и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РК дали понять, что их стала раздражать чрезмерно активная позиция командования войсками ООН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Тут стоит пояснить, что эта структура лишь формально носит название ООН, на деле же ее возглавляет американский генерал, который командует и контингентом США в Южной Корее. Командование ООН же контролирует с южно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ы всю границу между РК и КНДР. А потому южане при каждом проезде через межкорейскую границу должны спрашивать у американцев разрешения. Командование ООН в 2018 г. под предлогом не соблюдения формальностей не разрешило проезд специалистов правительства Юга, которые собирались обследовать железные и автомобильные дороги КНДР. При этом сам Пхеньян дал "зеленый свет" на приезд южан, но американцы, которым не нравилось такое сближение, решили показать, "кто на границе хозяин". По крайней мере именно так были расценены официальным Сеулом действия командования ООН.

На днях командование ООН также вошло в клинч с южнокорейским министерством обороны, опубликовав свое расследование по поводу стрельбы на межкорейской границе 3 мая. Южане заявили, что КНДР скорее всего случайно выстрелила из пулемета, но командование ООН не согласилось практически с каждым пунктом выводов южнокорейских военных. По версии командования ООН, и Юг, и Север нарушили режим прекращения огня, и при этом отказалось поддерживать версию южан, что северяне выстрелили случайно. Эксперты же отметили, что крайне необычно, когда командование ООН так подробно и публично озвучивает свои оценки. В результате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ороны РК официально выразило "сожаление" по поводу выводов командования войсками ООН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хотя для южнокорейских военных тоже очень нетипично конфликтовать с американцами.

Далее стало известно, что роль командования ООН в Корее уже давно не нравится нынешнему правительству Юга. Советник президента Мун Чжон Ин в сентяб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назвал командование ООН "самым большим барьером" на пути развития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Командование ООН препятствует межкорейским контактам через ДМЗ. Согласно соглашению о прекращении огня, командование должно только управлять ДМЗ и линией разграничения. Если командование продолжить поступать так, как уже сделало неоднократно, то народу Южной Кореи это не понравится", - сказал Мун.

Министр объединения РК Ким Ён Чхоль заявил в октябре 2019 г., что командование превышает свои полномочия, а его роль должна ограничиваться лишь сугубо военными вопросами.

Уже упомянутый Лим Чжон Сок выразился недавно еще более четко: "Командование ООН должно делать только то, что ему предписано по части пересечения линии разграничения, а не действовать, будто у него есть какие-то особые права. Эту проблему надо решить как можно скорее", - сказал Лим в интервью местному журналу.

По мнению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ША злоупотребляют ролью командования войсками ООН и используют эту структуру как рычаг, сдерживающий межкорейское сближение.

На днях также стало известно и о южнокорейско-американских расхождениях в отношении характера совместных учений, которые должны состояться в августе этого года. Камнем преткновения стал вопрос о передаче командования войсками РК и США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Сеулу в случае военного конфликта. Согласно действующим соглашениям, если на полуострове начнется война, то командовать объединенными войсками будут американские генералы. То есть, проще говоря, в случае войны отдавать приказы южнокорейским солдатам будут американцы. РК и США договорились, что к 2022 г. это право будет передано южно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е, но для этого надо подготовиться. Вот южане и настаивают, чтобы учения в августе были посвящены как раз этому вопросу и чтобы в них южнокорейские военачальники потренировались в руководстве объединенными силами РК и США.

Американцы же против такого подхода к учениям в

августе, настаивая на том, чтобы на маневрах командовали они и отработывали совместные действия, в том числе против КНДР. Генералы США указывают, что подобные учения должны были пройти в марте, но раз маневры из-за коронавируса отменили, то их надо провести в августе. Южане же указывают, что августовские учения запланированы как тренировка по части передачи командования, а если их отложить, то под угрозой будет график официальной передачи командования в 2022 г.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и его окружение намерены добиться возвращения права руководить своими войсками до ухода с поста лидера страны, то есть до мая 2022 г. Некоторые полагают, что американцы намеренно стали затягивать передачу и пытаются дотянуть до президентских выборов, надеясь, что следующий президент Юга будет не таким радикальным по части дружбы с КНДР и самостоятельности Южной Кореи.

Часть южнокорейских СМИ утверждает, что генералы США считают, что их корейские коллеги просто пока не в состоянии управлять тем, что может оказаться в их распоряжении. По слухам, американцы прямо сказали, что их беспокоит, как генералы Юга могут начать обращаться с огромными во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авианесущих группировок США, которые могут быть стянуты к полуострову и поступят под командование Сеула. Одно из корейских изданий заявило, что на недавней проверке способностей офицеров Юга руководить совместными силами, командующий войсками США в Корее генерал Роберт Абрамс вообще хлопнул дверью и уехал в свой штаб - на военную базу США в Пхентхэке, не дожидаясь завершения проверки. Утверждалось, что американцы были разочарованы неспособностью южан эффективно координировать действия войск.

В командовании США в Корее это категорически опровергли, но признали, что генерал Абрамс правда уехал досрочно, хотя по другой причине - у него умерла теща. Правда разные источники в один голос говорят, что вне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того, почему генерал США уехал, расхождения между сторонами по поводу учений и будущей концепции руководства войсками очень сильны.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заметно, что ни Сеул ни Вашингтон не хотят выносить сор из избы и не желают вступать в открытую перепалку, но при этом обе стороны также не хотят уступать и при каждом случае не забывают подчеркивать незыблемость своего подхода.

Понятно, что руководству Юга уверенности добавили результаты парламентских выборов 15 июня. Консервативная оппозиция Юга, которая солидарна с США по вопросу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жесткого давления на КНДР, обещала на выборах устроить правящему лагерю "народный суд", но в итоге потерпела сокрушительное и беспрецедентное поражение. Правящий лагерь теперь уверенно контролирует большинство в парламенте и может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принимать новые законы. Это стало своего рода ветоумом доверия народа Южной Кореи тому курсу, который реализует Мун и его окружение, в том числе и по част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По крайней мере именно так интерпретируют итоги выборов в правящем лагере.

Насколько известно, среди близких соратников нынешнего президента РК хватает тех, кто давно говорит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меньше слушать "рекомендации вашингтонского обкома" и настаивают на более самостоятельной линии н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м направлении. Мун Чжэ Ин сам также явно хотел бы придать новый толчок межкорейскому сближению, которое было особенно заметно в 2018 г., когда состоялись сразу три его личные встречи с Ким Чен Ыном.

Вместе с тем Мун, имея рычаги и желая что-то сделать серьезное, все же не хочет идти на полный конфликт с США, которые не хотят проявлять полной "гибкости и понимания" позиции Сеула п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му вопросу. Кроме того, значительная часть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будет явно не рада стычке с Вашингтоном. Северная Корея также пока не особо реагирует на предложения Юга о возобновлении диалога и контактах, требуя от Сеула готовности идти на конфликт с США ради развития связей с Пхеньяном.

Потому остается открытым вопрос, сможет ли Сеул проявить достаточно твердости и отстоять свою более самостоятельную роль и позицию. Тем не менее, сейчас уже очевидно следующее: Сеул и Вашингтон все больше расходятся во взглядах по поводу оптимального пути решени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проблемы, а также имеют разные точки зрения на роль США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рекомендовать сахалинцам, которые возвращаются в область, перед вылетом сделать тест на коронавирус

В целях безопасности областная КЧС рекомендовала эту меру, чтобы во время полета на воздушном судне сахалинцы не заражали своих земляков.

С началом отпускного периода увеличилось число вылетающих на материк. При смене климата у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могут возникать разные признаки инфекционных заболеваний, в том числе ОРВИ, гриппа, простуды. Под этой маской нередко прячется коронавирусная инфекция. Поэтому мы рекомендуем всем жителя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еред возвращением с материка домой сдавать анализ на коронавирусную инфекцию. Особенно тем, кто во время отпуска имел признаки ОРВИ. Чтобы не заразить тех, кто летит рядом, — отметил министр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Ющук.

Тест на COVID-19 делается за три дня до приезда. Региональные власти договорились с авиакомпаниями, летающими на острова, что сахалинцев, которые имеют признаки заболевания или справку о наличии коронавируса обеспечат средствами спе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Предлагаем людям, которые летят с подтвержденным диагнозом, надеть эту экипировку и выполнить все необходимые требования во время перелета. А здесь мы встретим и обеспечим медицинским наблюдением, — отметил министр.

Напомним, справка об отсутствии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обязательна для граждан, не имеющих сахалинскую регистрацию и прилетающих на острова на работу. Кроме того, все прибывающие в область отправляются на строгую двухнедельную обсервацию — на дому или в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Для выхода из карантина необходимо получить отрицательные результаты анализов на коронавирус и пройти компьютерную томографию легких.

## Жител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бязаны носить маску в общественных местах, включая магазины

Работники торговых точек вправе отказать покупателю без средств индивидуальной защиты в обслуживании на основании требований соблюдения норм безопасности, прописанных в указе губернатора о режиме повышенной готовности.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разъяснениями Роспотребнадзора, требования ношения маски в общественных местах, на объектах розничной и оптовой торговли, в общественном транспорте, в аптеках и медучреждениях, прописанные в указе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38 от 5 мая 2020 года, являются предписанием. А, значит, обязательны к исполнению и влекут к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несоблюдение.

При этом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бъектов торговли: охрана, менеджеры, продавцы должны информировать посетителя о действующем режиме. При наличии в продаже покупателю могут предложить приобрести маску при входе в магазин.

Многие сахалинцы уже несколько недель используют маски и перчатки, за что им огромное спасибо. Другие могут посчитать эти требования неприятным ограничением. Хочу отметить, что призывом обязательно использовать средства индивидуальной защиты мы не усиливаем ограничения, а стремимся снизить риски. Это позволит быстрее вернуться к обычной жизни,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а министр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и торговл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нна Павленко.

Согласно рекомендациям Минпромторга России, в случае несогласия посетителя исполнять требования, сотрудники магазина вправе вежливо, не вступая в конфликт, отказать ему в обслуживании.

Граждане, не выполняющие требования ношения масок при посещении общественных мест, включая торговые объекты, могут быть оштрафованы на сумму от 1 до 30 тысяч рублей, согласно части 1 статьи 20.6.1. КоАП РФ.

Сегодня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работают больше 4 тысяч объектов розничной и оптовой торговли. Областной минсельхозторг до всех доводит информацию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соблюдения требований. Однако, на некоторых объектах торговли и услуг отсутствует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блюдении масочного режима, выявлены факты работы сотрудников без средств защиты, не обеспечивается социальная дистанция.

В отношении нарушителей возбуждено 53 дела об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м правонарушении. 35 материалов уже переданы в суды для рассмотрения.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м могут грозить внушительные штрафы: на должностных лиц — от 10 тысяч до 50 тысяч рублей; на юридических лиц — от 100 тысяч до 300 тысяч рублей.

## Сахалин сможет принимать всероссийские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 легкой атлетике

Это стало возможным благодаря новому оборудованию, которое приобрели для спортшколы летних видов спорта имени заслуженного тренера РСФСР Э.М. Комна-

кого. В учреждении появился тренажер Vertimax и система радиопередачи звукового сигнала стартового пистолета и фотофиниша.

Тренажер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тренировочную платформу, позволяющую развивать скоростные и силовые качества, а также выносливость. На пояс и ноги спортсмена крепят резиновые тросы, которые протянуты через блоки. Таким образом, при движении атлета образуется повышенная нагрузка на нижние конечности.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стала первым регионом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закупившим так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для госучреждения. Раньше их закупали только частные фитнес-клубы.

Около года назад мы проводили тренировки в Кисловодске, на спортивной базе, оборудованной для сборной России. Там мы впервые и столкнулись с этой платформой. Тренажер даёт большое преимущество. Спортсмены могут отработать технику, а наставнику проще увидеть ошибки и исправить их, — рассказывает тренер спортшколы Роман Трубецкой.

Тренажер рассчитан на опытных легкоатлетов, которые отрабатывают технику бега. Особенно оборудование полезно для кандидатов в мастера и мастеров спорта.

Тренажер оставил положительные эмоции. Я почувствовал большую разницу в сравнении с обычной физподготовкой. Очень сильно загрузились задняя поверхность бедра и икроножные мышцы. Занимаясь на этой платформе планирую два-три раза в неделю, — отметил кандидат в мастера спорта по легкой атлетике Даниил Нетяго.

Кроме того, школа приобрела систему радиопередачи звукового сигнала стартового пистолета к фотофинишу. Она позволяет уйти от использования секундомеров и определять точный результат забега вплоть до тысячной доли секунды. При нажатии спускового крючка на пистолете сигнал передается на фотокамеру и автоматически стартует отсчет времени. При пересечении спортсменом финишной черты оно автоматически останавливается.

Это позволяет нам уйти от проводов, ковров и воздушных линий. Также теперь не придется судейскому корпусу работать с секундомером, потому что это давало несколько субъективные результаты. Кто-то нажмет кнопку немного раньше, кто-то позже,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реакции. Теперь такого не будет, — поделился президент областной федерации легкой атлетики Антон Воротыляк.

Помимо этого, радиосистема позволяет засекаеть результаты для мастеров спорта. При помощи обычных секундомеров это запрещено.

Оборудование приобрели благодаря субсидии областного минспорта в рамках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Спорт — норма жизни». Как отметила директор департамента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ы и спорта Ирина Рябина, новая техника не только усовершенствует тренировочный процесс легкоатлетов, но и позволит проводить спортшколе круп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Так, благодаря системе радиопередачи Сахалин теперь сможет принимать соревнования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уровня, где наличие этой аппаратуры является необходимым условием.

## На «Горном воздухе» стартовали еженедельные тренировки для всех желающих

Каждое воскресенье на спортивно-туристическом комплексе проходят занятия по общей физической подготовке и маунтинбайку — горному велоспорту.

Все желающие укрепить свое здоровье встречаются на средней станции в 10:30. Подъем по канатной дороге с 10:00 до 10:20 бесплатный. Занятия на велосипедах начинаются в 12:00 на нижней станции.

Тренировки по ОФП проходят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опытного инструктора — мастера спорта России по гиревому двоеборью, победителя всероссийских турниров по рукопашному бою и современному панкратиону Андрея Мирошникова.

Погода в минувшее воскресенье не подвела. На площадке собрались десятки сахалинцев разных возрастов. Любители спорта выполнили интенсивную разминку — подготовку к преодолению вершины Большевика. Подъем на гору проходил в интервальном режиме: сначала участники забегали вверх до определенного участка и потом возвращались обратно, после чего уже шагом поднимались в течение 40 секунд вверх и начинали делать присед, и так до самой вершины.

Тренироваться на свежем воздухе — одно удовольствие, а особенно с людьми, которые с тобой на одной волне. После тренировки я весь день бодрый. На занятия я хожу уже второй год и благодарна, что у нас в городе есть такой проект, — рассказала одна из участниц Анна.

Я сегодня пришел впервые на тренировку, еще с прошлого года слышал восторженные отзывы друзей о занятиях на «Горном воздухе». Сначала сомневался в своих силах, но когда дошел до вершины, почувствовал огромный прилив сил и желания продолжать занятия, — поделился впечатлениями южносахалинец Евгений.

Всех экстремалов и просто любителей покататься на велосипеде на нижней площадке комплекса провели открытую тренировку по маунтинбайку. Занятия проводила региональ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ахалинский клуб экстремального велоспорта».

Сначала участникам рассказали теоретические основы маунтинбайка, провели разминку и техосмотр.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лось технике безопасности. Практика отработывалась на нижней площадке «Горного воздуха» и на учебной трассе — на юго-западном склоне.

Экстремалы пришли на тренировку со своими велосипедами. Перед занятиями инвентарь прошел техосмотр: если инструкторам что-то не нравилось, клуб предоставлял собственные горные велосипеды. Также спортсменам выдали шлемы для спуска по трассе.

Я увидел объявление о тренировках в Интернете и сразу же загорелся желанием прийти. Маунтинбайк — это моя мечта. Раньше я катался только на велосипеде в городе или в байк-парке, а теперь решился попробовать себя на горных трассах, — рассказал участник первой в этом году тренировки Андрей.

С 20 июня «Горный воздух» запускает тренировки по новому направлению — по йоге. Утренние практики будут проводиться еженедельно по субботам в 10:30 на средней станции комплекса.

Все тренировки на открытом воздухе продлятся ориентировочно до ноября. Стоит напомнить, что в связи с эпидемиологической обстановкой подъем по канатной дороге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только в масках.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информацию по тренировкам можно получить по телефону: 51-11-10, добавочный 117.

## 11 реанимобилей пополнили автопарк сахалинских медучреждений

Ключи от машин 9 июня вруч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Это самая крупная партия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х автомобилей класса С, которые поступали в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Эти машины существенно укрепляют сахалинскую систему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медицина в районах становится более доступной. Сейчас реанимобили будут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для госпитализации пациентов с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ей,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Я хочу поблагодарить наших медиков за профессионализм. В области нет ни одного летального исхода от коронавируса, и мы ни разу не прибегали к искусственной вентиляции легких. Но все равно мы должны быть готовы к самым сложным случаям.

Реанимобили предназначены для перевозки пациентов в тяжелом состоянии. Все они оснащены самым современным оборудованием — аппаратами искусственной вентиляции легких, дефибрилляторами, мониторами.

Это маленькая реанимационная палата на колесах. Внутри можно комфортно выполнять необходимые манипуляции для транспортировки пациентов даже в самом тяжелом состоянии. Здесь есть удобная тележка, вакуумные носилки, оборудование. Автомобиль высоко проходимый, полноприводной. Уверен, что машины будут надежными помощниками в деле спасения человеческих жизней, — отметил министр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Ющук.

Реанимобили отправились в медицинские учреждения 11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 от юга до севера. Машины будут помогать спасать жизни не только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но и в Холмском, Невельском, Долинском, Корсаковском, Томаринском, Углегорском, Поронайском, Тымовском,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м, Ногликском районах.

В Александровске-Сахалинском реанимобиль ждали давно. Пациентов с сердечно-сосудистыми заболеваниями регулярно приходится отправлять за 56 километров от райцентра. Первичное сосудистое отделение базируется в Тымовской ЦРБ.

Скорость и комфорт для пациентов — это очень важно. Нельзя везти людей с острым коронарным синдромом или нарушением мозгового кровообращения на машине с жесткой подвеской по бездорожью, — сказала заместитель главного врача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й ЦРБ Татьяна Шимулина.

Для Невельского района это уже вторая карета скорой помощи класса С.

Потребность очень большая. Мы возим пациентов не только по своему району, но и в областной центр. Минимум два-три раза в неделю совершаем рейсы, — сказала исполняющая обязанности главного врача Невельской ЦРБ Ксения Лапонова.

Отметим, что сегодн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101 машина скорой помощи всех классов. Более 60 процентов из них — современные и комфортные автомобили, которые прослужили в регионе менее 5 лет.

Закупка новых реанимобилей стала возможной благодаря федеральной программе, которую реализует Минздрав совместно с Минпромторгом РФ по инициативе Президента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 다문화를 피우는 꽃, 존중이 밑거름입니다

다문화 사회는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생각들이 소통되는 곳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우리 사회에 건강한 다문화를 꽃피울 수 있습니다.

'국민 김용규님께서 제안한 슬로건입니다.'

#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Тем, у кого нет аккаунта в Instagram, предлагается присылать фотографии пирогов на WhatsApp. Контактный телефон: 8-902-57-33-855.

Фотографии участников акции "Испеки пирог и скажи спасибо", посвященной Дню России, будут размещены на страницах группы "Наш Холмск" в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 사할린 주민들, 온라인 아카데미에서 드론 조종 배우기

러시아에서 처음으로 드론 조정 온라인 아카데미를 '근로 적립' 러시아 체조 스포츠 공동체가 개설한다. 수업은 무료이며 아카데미 수업에서 첫 드론 비행 조정 수업이 시작되었다.

수강생 모집은 계속되고 있다고 사할린주 스포츠 부가 전했다. 국내에 유사 프로그램에는 없는 독특한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을 이 분야의 지도자들이 작성했는데

이들은 '드론 스포츠 글로벌(Drone Sports Global)' '드론 레이싱 러시아 전문팀이다.

'근로 적립' 러시아 체조 스포츠 공동체의 단체장인 일리야 갈라예브는 '드론은 미래의 스포츠이고 무한 가능성을 제공하는 RTF(구입 후 바로 비행 가능한 제품) - 1이다.'라고 간주하고 있다.

갈라예브는 과학은 진보하고 있으며 생활의 영역

과 첨단기술의 기능이 첫 계획으로 등장한다.

교육과정은 3개월간 30회 수업으로 구성되며 이 중 일부는 온라인상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은 3단계로 진행하는데 시뮬레이션 교육, 드론 조립, 실습 과정이 이뤄진다.

마지막 실습은 러시아 각 지역에서 비행을 하게 하는 것이다.

'드론 스포츠 글로벌(Drone Sports Global)' 팀의 러시아와 세계 챔피언인 아카데미 교관들이 수업을 진행하고, 모든 문제들을 정리 해결하고, 실전 기술을 공유하며, 비행 조정의 기초를 가르치고, 현대 가장 중요한 드론의 비행과 이들 규정에 대해 설명한다.

주민들은 지역과 연령에 관계없이 희망자 누구나 아카데미 수강생이 될 수 있다.

교육과정 후에는 비행 조정 이수에 대한 수료증을 발급한다. 특별히 우수한 성적을 거둔 수강생들은 '드론 스포츠 글로벌(Drone Sports Global)' 팀을 포함해 세계 우수팀의 구성원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 수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vk.com/acdrone](http://vk.com/acdrone)에서 확인할 수 있다

## Сахалинцы могут научиться управлять дронами в онлайн-академии

Первую в России онлайн-академию по управлению дронами открывает Всероссийское физкультурно-спортивное общество «Трудовые резервы». Занятия в академии, где уже начались первые уроки пилотирования, абсолютно бесплатные. Но набор желающих

продолжается, сообщили в региональном минспорта. Обучение идет по уникальной программе, не имеющей аналогов в стране. Ее разработали лидеры отрасли —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ая российская команда по дрон-рейсингу Drone Sports Global. Ее считают одной из самых элитных в мире.

Президент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физкультурно-спортивного общества «Трудовые резервы» Илья Галаев считает, что дроны — спорт будущего и настоящая формула-1, дающие безгранич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Галаев считает, что наука идет вперед и на первый план выходят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ые умения и сферы жизни.

Курс обучения рассчитан на 30 уроков за 3 месяца, часть из них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в онлайн-режиме. Он включает три этапа: обучение на симуляторах, сборка дронов и практический курс. Последний позволит полетать ученикам в разных частях России.

Наставники академии — чемпионы России и мира из команды Drone Sports Global, будут проводить уроки, разбирать все ошибки, делиться лайфхаками, обучать основам пилотирования и рассказывать о самых важных гонках современности и их правилах.

Стать учеником академии сможет любой желающий вне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возраста и места жительства.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учебы выдают сертифицированные дипломы о прохождении курсов пилотирования. Особо отличившиеся ученики получают шанс попасть в состав лучших команд мира, включая Drone Sports Global.

Подробную информацию об академии можно найти по ссылке: [vk.com/acdrone](http://vk.com/acdrone).

(사할린주,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에서)



Ваш сервис для заказа вкусной еды

### Наши преимущества:

- У нас большой выбор заведений
- Удобная разбивка по категориям
- Популярные блюда



- Информация о скидках и акциях в заведениях
- Понравившийся заказ легко повторить
- Сортировка заведений по отзывам и рейтингу

91 ЗАВЕДЕНИЕ

684 200 ЗАКАЗОВ

105 800 ПОЛЬЗОВАТЕЛЕЙ

28 075 ОТЗЫВОВ

### Вы можете заказывать



на сайте [eda.sakh.com](http://eda.sakh.com)



в приложении [eda.sakh.com](http://eda.sakh.com)



реклама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mailto: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19-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